

# ■ 정부 대학입시 정시 비율 상향조정 안 / 제주 교육현장 '예의주시'

## “공정성 보장” vs “현 교육과정 역행”

도내 고교 수시전형 비중 최근 3년 증가세  
“2022년 시행 앞둔 고교학점제 영향 불가피”

정부가 대학 입시에서 수능시험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 비중을 늘리기로 하면서 제주도내 학교 현장에서도 앞으로의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대입 '정시 비율 상향 조정'을 꺼내들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과 맞물려 교육부는 정시 비율 상향 폭을 검토하고 있다.

대입에서 정시 비중이 확대되면

도내 고등학교에서도 이에 맞춘 변화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가 도내 고교를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7학년도 대입에서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등의 수시전형으로 진학한 학생은 같은 해 대학에 들어간 도내 고교 졸업생(5686명)의 62%(3530명)였다. 그 비중은 2018학년도 64.1%, 2019학년도 73.7%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시가 확대되면 수시 위주로 입시를 대비하던 학생들의 대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정시 확대를 두고 학교 현장에서는

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대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문제풀이식 교육과정으로 되돌아갈 거라는 평가가 맞선다.

제주시내 한 고등학교 관계자는 “수시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선 학생부 기재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도내 학급 당 인원 수가 35~40명이 되다 보니 교사 업무 부담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시를 확대한다고 해도 그 비율이 40~50% 정도이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또 다른 고등학교 관계자는 “수능 위주 정시전형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계획이 이뤄져 왔는데, 다시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건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이는 현재 대입제

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찬반 여론을 떠나 대입 정시 확대가 2022년부터 고등학교에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상충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했을 때 졸업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관계자는 “여행지리, 경제수학 등 모든 진로선택과목이 수능을 보지 않는 과목이다 보니 정시 비중을 확대했을 때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 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고교학점제의 시행 목적과 모순될 수 있는 부분이라 교육부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 양돈축협 액비 400t 엉뚱한 곳에 살포 제주시 “가축분뇨법 위반 자치경찰단에 고발”

축협 “담당직원 실수” 해명

제주양돈축협이 가축분뇨를 재활용해 생산한 액체비료(액비) 수백t을 엉뚱한 곳에 뿌려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시는 제주양돈축협 제주도내 유전센터(이하 제주도내유전센터)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자치경찰단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제주시 조사 결과 제주도내유전센터는 지난달 30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미신고 초지'에 액비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뿌린 액비는 400t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에 따라 액비 자원화시설 설치업자는 액비를 살포할 조치 등을 미리 확보한 뒤 이 살포지를 관할관청에 신고해 등록해야 한다. 제주도내 유전센터는 양돈장에서 배출된 가축

분뇨를 액비로 만들 수 있는 자원화 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다.

제주도내유전센터 측은 미신고 초지에 액비를 살포한 이유에 대해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제주도내유전센터 관계자는 “이번 액비를 잘못 살포한 곳은 우리가 등록한 초지와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라며 “미등록 초지와 등록된 초지를 구분할 경계선이 없는 상태에서 담당직원이 위치를 착각해 액비를 살포한 것이지 고의로 뿌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당시 살포된 액비는 완전히 부속된 것으로 액비 품질 기준에는 적합했다”면서 “다만 직원의 실수라고 해도 미신고 초지에 액비를 살포했고 그 양도 방대해 고발을 안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내년 한국어교육전공 신설

제주대학교는 내년 3월부터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협동과정 한국어교육전공을 신설한다.

이번 전공 신설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했다. 한국어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제주에 유입되는 데 반해 제주에는 이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었다.

한국어교육전공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 한국어 교육에 대한 최신 이론과 방법을 연구한다.

신입생 모집은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다. 문의 755-1469. 진선희기자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 29일 제주시 도두봉에서 바라본 신제주 일대가 미세먼지에 뒤덮여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 청정가을 기대했는데... '미세먼지' 습격

어제 5월 이후 6개월만에 제주지역 '주의보' 발령

봄을 지나 여름철 주춧값이던 미세먼지가 가을로 접어들며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은 29일 오후 1시를 기해 제주도 전역에 '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 5월 2일 이후 약 6개월 만

이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농도 150 $\mu\text{g}/\text{m}^3$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되면 발령되며, 300 $\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지속할 때는 경보가 발령된다. 농도는 '좋음' 0~30 $\mu\text{g}/\text{m}^3$ , '보통' 31~80 $\mu\text{g}/\text{m}^3$ , '나쁨' 80~150 $\mu\text{g}/\text{m}^3$ , '매우 나쁨' 151 이상  $\mu\text{g}/\text{m}^3$  등으로 구분한다.

29일 오후 4시 기준 미세먼지는

제주시 연동 234 $\mu\text{g}/\text{m}^3$ , 성산 225 $\mu\text{g}/\text{m}^3$ 를 보이는 등 제주지역에 '나쁨 수준'을 보였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삼가해야 하며 일반 시민들도 과격한 실외운동·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야외수업이 금지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교통사망사고 3건중 1건 10~12월 발생

경찰 사고예방활동 강화

제주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행락철과 감귤 수확철을 맞아 사고 예방 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242건의 교통 사망사고 중 33.5%(81건)가 가을 행락철과 감귤 수확철이 겹치는 10~12월에 일어났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자치경찰과 함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에 사고 예방 활동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구대와 파출소에 배치된 지역경찰은 사고가 많은 교차로에서 거점 근무하며 보행자 안전 확보에 주력한다.

또 기동경호 싸이카 요원은 서귀포시 지역에 집중 투입돼 감귤 수송용 화물차량의 과적·과속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또 주·야간 구분없이 음주운전 단속도 실시한다.

제주경찰청은 “가을 행락철과 농번기에는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양보하는 습관을 정착하는 데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 2019 진로직업박람회 한라체육관 일대 개최

제주도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진로체험의 장이 마련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야외 광장에서 '2019 제주진로직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제주진로진학상담교과교육연구회가 운영하는 자리다.

올해로 9회째 열리는 박람회는 진로검사와 상담을 비롯해 다양한 체

험으로 꾸며진다. 진로직업체험관은 물론 특성화고, 진로동아리, 미래직업, 4차 산업혁명 등의 체험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박람회 기간 10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된다.

박람회 첫째, 둘째 날에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마지막날엔 초·중고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 진로를 탐색하고 공유하면서 미래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사람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http://marathon.ihalla.com 제주감귤국제마라톤

황금빛 제주 감귤향기 가득 담은  
제주 최고(最高)! 최대(最大)의 마라톤 대축제!!

제17회 The 17th Halla Marathon  
2019 제주감귤국제마라톤

폴코스 | 하프코스 | 10km | 5km

2019.11.10 일 오전 9:00  
조천운동장-월정리해안도로 방향 왕복

2019 제주감귤국제마라톤 개최를 축하합니다.

문의  
제주감귤국제마라톤 사무국 T.064-750-2291

상가임대  
제주시 청사로 75(도남동, 동남빌딩)  
1층 241㎡

회사보유분 매매  
서귀포시 중앙로 225(서홍동)  
동남한울레아파트 84.90㎡  
505호, 605호

문의 ☎ 064)753-8181